

#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의 유튜브 계정 분석 연구: 현황 파악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강 용 식  
(안동대학교 조교수)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이하 '경북도향')의 유튜브 계정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향의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영상들을 기능에 따라 기록, 감상, 교육, 홍보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또한 다른 오케스트라와의 비교를 통해 경북도향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볼 것이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오케스트라들은 국립심포니,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KBS교향악단인데, 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들로 적절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보인다. 한편 본 논문은 단순히 영상의 종류나 개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볼 점들을 지적하고 학술적인 논의를 통해 이 변화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사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경북도향의 역사와 유튜브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간단

---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안동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히 살펴보겠다. 경북도향은 1997년 창단되었으며 현재 백진현 교수가 6대 지휘자를 맡고 있다. 경북도향은 “경북의 혼을 담은 연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수준 높은 정신문화 향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공연문화 정착”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 “경북도민을 위해 힘쓰고 있다.”<sup>1)</sup> 현재 경북도향은 별도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지 않고 상위기관인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의 유튜브 계정(경상북도예술단TV)을 사용하고 있다.<sup>2)</sup> 이 계정은 2020년 3월 10일에 개설되었으며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3개의 예술단체(경상북도 도립무용단,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022년 8월 17일 현재 업로드된 영상은 총 118개이며, 약 3천(2.99K)명이 구독하고 있다. 118개의 영상 중 경북도향과 관련 있는 것은 총 57개이다(〈부록 1〉 참고).

유의할 점은 경북도향의 첫 번째 영상이 2020년 5월 19일에 게시되었는데, 2020년 1월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sup>3)</sup> 이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으로써 대부분의 공연들이 취소되었고, 따라서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경북도향 계정은 비대면 공연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경북도향뿐만 아니라 다른 교향악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기존에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던 단체들도 2020년을 기점으로 유튜브 사용을 대폭 강화하거나 크게 변경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

## II. 기록: 아카이브로서의 유튜브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들이 생겨난 이후 아카이브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문서를 넘어 소리까지 보존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녹음 기술이 발전한 이후 가능해졌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시카고 심포니

1) 경상북도, “교향악단 소개,”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culture/page.do?mnu\\_uid=2222](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culture/page.do?mnu_uid=2222) [2022년 8월 29일 접속].

2) 경상북도예술단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i\\_Q3pyzuha0uX56PaBv4nQ](https://www.youtube.com/channel/UCi_Q3pyzuha0uX56PaBv4nQ) [2022년 8월 29일 접속].

3) Victor Cha, “A Timeline of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0년 3월 27일, <https://www.csis.org/analysis/timeline-south-koreas-response-covid-19> [2022년 8월 29일 접속].

오케스트라의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를 지냈던 헨리 포겔(Henry Fogel)은 녹음 자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역사는 그 소리에 담겨있다. 프로그램, 신문기사, 리뷰, 기념품 등 이 모든 것은 아카이브에서 중요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핵심은 그것이 만드는 소리에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관심이 많은 역사가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어떤 소리를 냈는가?”이다.<sup>4)</sup>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76년부터 연주 녹음들을 보관하기 시작하였으며,<sup>5)</sup>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88년에 문헌 자료보다 녹음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sup>6)</sup> 유튜브는 동영상 아카이브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오케스트라들이 자신들의 연주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있다.<sup>7)</sup>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향이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아카이브로서 유튜브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국립심포니이다. 국립심포니는 2012년부터 연주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시즌별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연주들을 게재하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2014년부터 연주 영상을 업로드하였지만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이 영상들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비록 작은 차이지만, 두 계정을 비교해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국립심포니 계정이 특정한 해의 연주를 찾는 데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경북도향도 시즌별로 구분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국립심포니처럼 시즌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4) Brenda Nelson-Strauss, “Preserving Chicago Symphony Orchestra Broadcast Tapes,” *The Midwestern Archivist* 16/1 (1991), 22에서 재인용.

5) Sabina Benelli, “Broadcasting and Orchestra Libraries,” *Fontes Artis Musicae* 60/4 (2013), 282.

6) Nelson-Strauss, “Preserving Chicago Symphony Orchestra Broadcast Tapes,” 21.

7) 예를 들어 서울시향은 2022년 4월 8일 “‘디지털 콘서트홀’ 아카이빙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서울시향, “[보도자료][22.04.08.] 서울시향, 유튜브 통해 디지털 콘서트홀 아카이빙 프로젝트 시작,” <https://www.seoulphil.or.kr/spo/newInfo/detail?langCd=ko&menuFlag=MFLG0001&postNo=6478> [2022년 8월 29일 접속].

보인다.

또한 유튜브에서 “경북도향”으로 검색을 하면 경북도향의 공식 계정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연주 영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영상들 중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에서 올린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구가톨릭 대학교 정기연주회” 영상이다.<sup>8)</sup> 이 영상은 경상북도가 “지역대학과 상생”을 위해 시행한 “청년예술인 양성 플랫폼 사업”의 일환이다.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경북도립예술단과 지역예술대학이 시도하는 최초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로서 “지역의 유망청년 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안동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경북도향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sup>9)</sup> 경북도향과의 합동연주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고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와의 공연 영상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의미 있는 사업의 영상을 경북도향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로드하면 사업의 파급력 및 홍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향의 유튜브 채널에는 163회 정기연주회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sup>10)</sup> 2020년 10월 16일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 같은 해 8월 20일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로 열린 무관중 콘서트의 녹화물이다. 정기연주회의 녹화영상을 올리는 것은 유튜브를 아카이브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청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증계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향은 경북도향과 비슷한 시기인 2020년 5

8) DCU음악·공연예술대학,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기연주회 1부,” [https://youtu.be/vRtM\\_pyQn0k](https://youtu.be/vRtM_pyQn0k) [2022년 8월 29일 접속]; DCU 음악·공연예술대학,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기연주회 2부,” <https://youtu.be/1U6CVXMc7WY> [2022년 8월 29일 접속].

9) 경상북도, “21.9.15.(수) 보도자료,”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0&B\\_NUM=120132101&B\\_STEP=120132100&B\\_LEVEL=0&key=0&word=&p1=0&p2=0&V\\_NUM=1594](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0&B_NUM=120132101&B_STEP=120132100&B_LEVEL=0&key=0&word=&p1=0&p2=0&V_NUM=1594) [2022년 8월 29일 접속].

10)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https://youtu.be/4g-uOfQG4WU> [2022년 8월 29일 접속].

월 29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는데, 서울시향은 이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sup>11)</sup> 또한 유튜브의 라이브챗(Live Chat) 기능을 활용하여 관객들과의 실시간 소통에 나섰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식 계정은 관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간단한 안내를 하였다. 예를 들어, 27분 38초에 한 사용자가 “지휘자님 마스크 위아래 바귀었어요~”라는 채팅을 남기자 약 3분 뒤인 30분 23초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지휘자님 마스크 의견 감사드립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그 외에도 연주 사이의 자리 배치 시간에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교향악단입니다. 연주자 간 거리 두며 앉기 등으로 인해 무대 전환 시 시간이 조금 걸리니, 온라인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다(29분 54초). 또한 댓글에서 영상과 음향에 대한 칭찬이 계속 이어지자 “오늘 공연 스텝은 영상 마지막 크레딧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라는 당부의 글을 작성하였다(1시간 29분 5초). 2022년 8월 17일 현재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수는 27개에 불과하지만, 실시간 채팅은 수백 개에 이를 정도로 매우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실시간 스트리밍 스포츠 중계에서 채팅창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를 동시에 공유하는 사람과의 실시간 소통은 해당 문화 콘텐츠에 대한 몰입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sup>12)</sup> 이런 점은 서울시향의 실시간 중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북도향도 정기연주회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함으로써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I. 감상: 음악 재생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

이제 유튜브를 통한 음악 감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21년에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보다는 유튜브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11) 서울시립교향악단, “오스모 벤스케와 함께 하는 서울시향 온라인 콘서트,” <https://youtu.be/gZ90FEgq-9Q> [2022년 8월 29일 접속].

12) 김대원, 조용운, “실시간 스트리밍 스포츠 중계 채팅창의 논의 내용과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1 (2016), 12.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또한 이들은 단순한 감상뿐만 아니라 레슨이나 연주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14)</sup> 한국 사회에서도 유튜브는 음악 감상의 용도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2022년 6월 발표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은 주요 음원 서비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에서 멜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sup>15)</sup> 이 서비스들에서 클래식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도 유튜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 또한 바뀐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는 음악을 들으면서 영상을 함께 시청하기 때문에 음악 감상 수단으로서의 유튜브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영상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관찰로는 교향악단의 감상 영상들은 음악의 종류에 따라 클래식 음악과 비(非)클래식 음악으로 나누고, 그다음 영상에 따라 전통적인 감상 영상,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감상 영상, 즉 플레이리스트와 리믹스 영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클래식 음악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상하는 경우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연주회나 음반을 통해 음악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기록을 위한 영상들이 감상을 위한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교향악단들은 연주회 영상을 곡별로 편집하여 올려놓았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KBS: 디지털 K-Hall, 국심: 내 손안의 콘서트). 서울시향은 플레이리스트를 세분화하여 장르별(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서곡, 기타 장르)로 영상을 구분하여 놓았으

13) Marianna J. Czeisel and Veronica D. Smith, "University Music Students' Choice of Music Listening Sources: Use of Library Resources as Compared with Non-Academic Streaming Services," *Music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4/4 (2021), 206.

14) Czeisel and Smith, "University Music Students' Choice of Music Listening Sources," 207.

15) 배성수, "'음원시장 강자' 멜론 글로벌 업체 등 공세에도 1위 굳건," 『한국경제』, 2022년 6월 13일,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61358011> [2022년 8월 29일 접속].

며,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발매한 음반을 통째로 올려놓기도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특집 영상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경북도향은 “집 콕! 클래식”이라는 플레이리스트에 23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시향은 “미라클 서울”이라는 기획으로 29개의 영상을 올렸고 “온라인.ZIP 시즌 II”라는 제목으로 5개의 영상을 올렸다. “미라클 서울”은 서울의 여러 장소에서 새로 촬영된 영상인 반면, “온라인.ZIP 시즌 II”는 기존의 연주 영상을 재편집한 것이다.

## 2. 비클래식음악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상하는 경우

경북도향이 올린 57개 영상 중 비클래식 음악은 18개이다. 그런데 비클래식 음악인 “양진모의 푸른 올챙이 떼”<sup>16)</sup>와 “※핵귀염주의※ 징글벨 & 천사들의 노래”<sup>17)</sup>가 각각 조회수에서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부록 2〉 참고). 그 외에도 비클래식 음악은 조회수 상위 10곡 중에 다섯 곡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비클래식 음악이 높은 조회수를 보이는 것은 경북도향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동일한 현상을 서울시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향이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 중 조회수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것은 모두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2020년 12월 8일에 올린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조회수 221.5K<sup>18)</sup>를 기록 중이고<sup>19)</sup> 2021년 12월 10일에 올린 “미라클(美樂Classic) 서울 | 별마당도서관편”은 조회수 92.2K를 기록 중이다.<sup>20)</sup> 이외에도 서울시향이 참여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은

16)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양진모 - 푸른 올챙이 떼,” [https://youtu.be/eferaJas\\_i4](https://youtu.be/eferaJas_i4) [2022년 8월 29일 접속].

17)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핵귀염주의※ 징글벨 & 천사들의 노래가,” <https://youtu.be/0tEbMMkuIgc> [2022년 8월 29일 접속].

18) 유튜브에서는 천 단위를 K로, 백만 단위를 M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조회수 221.5K는 221,500을 줄인 말이며, 〈표 1〉에 등장하는 조회수 2.2M은 2,200,000을 의미한다.

19)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https://youtu.be/GPtfcaZOd24> [2022년 8월 29일 접속].

20) 서울시립교향악단, “미라클(美樂Classic) 서울 | 별마당도서관편,” <https://youtu.be/DqyJV1vnug0> [2022년 8월 29일 접속].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협업한 세 곡이다.

〈표 1〉 서울시향과 SM의 협업 곡들

제목	게시일자	조회수	원작자
Feel My Rhythm	2022년 7월 1일	2.2M	레드벨벳
빨간 맛(Red Flavor)	2020년 7월 17일	1.9M	레드벨벳
하루의 끝(End of a Day)	2020년 6월 24일	791K	종현

이 세 영상은 서울시향이 자체 제작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SM 소속 유명 아티스트의 곡들을 리메이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Feel My Rhythm》이 가장 최근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 영상들의 인기에는 단순히 유명한 곡을 리메이크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관찰한 결과 그 이유는 편곡과 영상의 완성도 차이이다. 《빨간 맛》과 《하루의 끝》이 기존의 노래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수준이라면 《Feel My Rhythm》은 재창작에 가까울 정도로 원곡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드벨벳이 부른 원곡<sup>21)</sup>에서는 처음 부분(13초-37초)에만 바흐의 《G선 상의 아리아》가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서울시향의 곡<sup>22)</sup>에서는 《G선 상의 아리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3분 47초 이후로는 《G선 상의 아리아》가 레드벨벳의 원곡과 교차로 나오면서 곡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영상 역시 이렇게 편곡된 음악과 어울리는 편집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콩쿠르에서 바흐의 《G선 상의 아리아》를 긴장된 모습으로 연주한다. 그러나 관악기가 들어오며 편곡이 시작되는 지점(1분 20초)에서 고등학생 연주자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서울시향의 연주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된다. 이후에는 서울시향의 연주장면과 고등학생의 모습들이 자유롭게 교차편집됨으로써 고등

21) Red Velvet, "Feel My Rhythm," <https://youtu.be/R9At2iCm4LQ> [2022년 8월 29일 접속].

22) SMTOWN, "서울시립교향악단 'Feel My Rhythm (Orchestra Ver.)'," <https://youtu.be/rQbXDnGgHVQ> [2022년 8월 29일 접속].

학생의 일상에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이에 대한 반응은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8월 29일 현재 다양한 언어로 된 6,678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음악과 영상의 우수함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This sounds so magical!”, “와 미쳤다... 소름이 쭉뚫네... 역시 SM 콘텐츠는 진짜 넘사다.. 월드클래스” 등이다. 한편 댓글 중에는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 간의 간극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s a red velvet fan and a classical music student I just have to say that this video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arrangements I’ve seen in my life. The video was a whole experience to be watched, from the music to the video itself”(레드벨벳의 팬이자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뮤직비디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편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영상 모두 반드시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클래식 애호가로서 이 곡 모르고 처음 들었을 때 바흐 곡이 대중음악에 쓰였다는 점이 참 좋았는데 [...]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재탄생한게 너무 보기 좋네요” 등과 같은 댓글들은 영상 시청자들이 암묵적으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클래식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필자는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클래식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사회학에서 클래식 음악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가 주장한 문화자본론이었다.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은, 소위 고급문화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지배계급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정의 내리고 사회적 특권을 독점”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이 관점에 따르면 서양고전음악은 고급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며,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서양고전음악 분야는 [...] 부를 축적한 계급 또

23) 김수정, 최셋별, “부르디외의 지적 전통이 한국 문화정책에 갖는 함의: 문화자본론과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2 (2018), 36.

는 집단이 서구의 고급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자본으로 수용함으로써 다른 계급 또는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매우 적절”한 분야였다.<sup>24)</sup>

그러나 문화자본론은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옴니보어 가설’(omnivore hypothesis)이 등장하면서 지배적인 담론으로서의 지위에 변화를 맞게 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미국 엘리트 집단은 클래식 음악과 같은 특정 분야에 배타적인 취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이른바 잡식성(omnivore)의 경향을 보인다.<sup>25)</sup> 이런 문화 엘리트들의 옴니보어 경향은 2020년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음악 장르를 좋아하고 더 적은 수의 음악 장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즉,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장르들에 대하여 “문화적 관용”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옴니보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케스트라가 비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소비하는 청중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변화를 한국의 오케스트라들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향도 이런 사회문화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감상

경북도향이 올린 영상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의 감상 영상이다. 즉, 영상이나 음향에 특별히 추가된 부분 없이 원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감상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플레이리스트이다.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감상은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 선곡해주는 곡들을 듣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2019년 유튜버 “때절

24) 최셋별, “상류계층 광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 음악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2002), 121.

25) 김수정, 최셋별, “부르디외의 지적 전통이 한국 문화정책에 갖는 함의,” 40.

26) 김수정, 이명진, 최셋별, “혐오시대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적 관용의 한계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문화와 사회』 28/3 (2020), 69.

록”의 등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플레이리스트는 특정 가수나 장르의 곡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날씨, 취향, 상황 등을 가리키는 감성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플레이리스트는 하나의 ‘소리 세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전파된다. 주로 상황을 조건 짓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음악 외적 요소, 예컨대 사진이나 영상물 혹은 섬네일의 색채감, 구도 등 시각 이미지,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효과음과 같은 다양한 연출이 더해진다.<sup>27)</sup>

특히 MZ세대의 경우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청취 방식이 대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8)</sup>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플레이리스트들에 댓글을 다는 방식을 이용하여 MZ세대는 취향의 공동체를 넘어 소통의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sup>29)</sup> 즉, 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단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상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경북도향은 아직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국립심포니와 KBS교향악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심포니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약 2주 간격으로 “플레이OST”라는 제목으로 33개의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Good Morning, 넌 어떻게 자다 일어난 모습까지 예쁘니?”,<sup>30)</sup> “Travel Maker,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sup>31)</sup> 등과 같이 영어와 한글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감성적인 제목을 붙였다는 것이

27) 김호경, “스트리밍 시대 새로운 음악 감상 방식의 출현과 그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58.

28) 김상하, “‘노동요 없이 일 못 해’ Z세대 음악 감상법,” 『주간동아』, 2022년 4월 27일, <https://weekly.donga.com/List/Series/3/all/11/3331999/1> [2022년 8월 29일 접속].

29) 김지혜, “플레이리스트가 만드는 ‘취향의 공동체’ … MZ세대가 유튜브로 음악 듣는 이유,” 『경향신문』, 2020년 11월 10일,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011101342011#c2b> [2022년 8월 29일 접속].

30)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Good Morning 넌 어떻게 자다 일어난 모습까지 예쁘니?,” [https://youtu.be/D5TDcbK\\_9v0](https://youtu.be/D5TDcbK_9v0) [2022년 8월 29일 접속].

31)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Travel Maker.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https://youtu.be/mn2EieNNtsE> [2022년 8월 29일 접속].

다.<sup>32)</sup> 또한 선곡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블로그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즉, 국립심포니의 플레이리스트 역시 일종의 취향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은 2020년 11월 19일에 게시된 영상인 “Good Morning, 넌 어떻게 자다 일어난 모습까지 예쁘니?”에 붙인 선곡자의 글이다.

알람을 다시 설정할까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왜 벌써 아침이 나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아침을 산뜻하게 만들어줄 OST를 틀어드릴게요. [...] 즐거움밖에 모르고 살았을 것만 같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푸른 도나우강 왈츠, 그리고 화려하고 힘찬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피날레를 들으며 춤을 추듯 걸어볼까요? 매일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늘 걸었던 길도 오늘은 왠지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엠마 스톤도 라이언 고슬링도 아닌 바로 당신이니까요.<sup>33)</sup>

이 글의 소재와 문체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즉, 이 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하는 개인적인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마치 화자와 내가 일대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유발한다. 또한 배경 영상은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유튜브와는 거리가 먼 카세트테이프의 이미지가 모든 플레이리스트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카세트테이프 주변의 이미지들은 짧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함으로써 움직임을 최소화하였다. 이런 장치들은 21세기 디지털 영상이 아니라 20세기 아날로그 이미지의 느낌을 강하게 준다. 즉, 이런 점들은 MZ 세대들의 특징적인 정서라고 알려진 “뉴트로” 그리고 “갬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과거를 동경하고 지향하는 “레트로”와 달리 “뉴트로”는 과거를 복원하는 것

32) 그러나 2021년 6월 2일 영상 “Madame Playost’s Secret Garden OST”부터는 제목이 영어로만 되어있다. 영상 설명에는 한글로 된 설명이 첨가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제목의 흡입력은 조금 떨어진다.

33) 월클, “Good Morning Ost,” <https://brunch.co.kr/@ksowebzine/10> [2022년 8월 29일 접속].

이 아니라 현재의 시공간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 “개인적 감성”을 의미하는 “갬성”은 “다양한 아카이브를 통해 [...] 형성된 각자의 독특한 취향들”을 의미한다.<sup>35)</sup> 즉, MZ세대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과거의 문화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대한 실제적인 기억이 없는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과거를 본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과거는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의 감성에 따라 취사선택된 개별화된 구성물이 된다. 국립심포니의 플레이리스트는 이런 MZ세대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상, 선곡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은 “갬성”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편 KBS교향악단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스토리 오브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업로드하고 있다. 현재 총 5개의 영상이 게시되었는데, 전체적인 운영방식은 국립심포니와 차이가 있다. 먼저 영상의 길이가 28분에서 1시간 19분으로 편차가 크고, 배경 영상에서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또한 “당신이 뭘 하든 집중력 상승! 고전시대 대표 교향곡 모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sup>36)</sup> “비오는 남산에서 듣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명곡 모음 + 빗소리 ASMR 추가”<sup>37)</sup> 등의 플레이리스트는 특정 장르와 작곡가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플레이리스트 경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만약 MZ세대를 겨냥한다면 이런 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경북도향도 적극적으로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리믹스를 통한 감상

한편 플레이리스트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인 재창작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플레이리스트 창작자의 주요 임무는 선곡에 있지만, 지금 살펴볼 리믹스

34) 주민재,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재의미화의 관계: 소환된 시터팝과 뉴트로 현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3 (2022), 78.

35) 주민재,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재의미화의 관계,” 70.

36) KBS교향악단, “당신이 뭘 하든 집중력 상승! 고전시대 대표 교향곡 모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https://youtu.be/0RanlIByPwM> [2022년 8월 29일 접속].

37) KBS교향악단, “비오는 남산에서 듣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명곡 모음 + 빗소리 ASMR 추가,” <https://youtu.be/guH4KzpMeqc> [2022년 8월 29일 접속].

영상처럼 창작자가 재창작 수준으로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영상은 경북도향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국립심포니와 KBS교향악단에서 발견된다. 흥미로운 점은 국립심포니와 KBS교향악단 모두 비슷한 동기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결과물은 매우 상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립심포니와 KBS교향악단의 대표적인 리믹스 영상들을 살펴보고 이런 점들을 어떻게 경북도향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겠다.

국립심포니는 “클래식리믹스”라는 제목으로 3개의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곡들을 재편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상 작가와 협업하여 일상의 풍경이나 편집된 화면을 넣었는데, 원곡들이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다른 음악이나 소리가 곡 중간에 첨가되기도 하였다.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에 대하여 음악평론가 신예슬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돌이켜보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마음은 늘 양가적이었습니다. 유럽 전통이라는 맥락을 깊게 이해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여기’가 어디인지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대 음악에 능통한 음악가/DJ들과 함께 클래식을 다른 장르의 음악과 자유로이 뒤섞고, 연결하고, 마음껏 가지고 놀며 오늘을 기록했습니다.<sup>38)</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가적” 태도이다. 즉, “유럽 전통”과 “지금-여기”라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혼종성(hybridity)이 국립심포니의 리믹스 영상에서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윤소진 작가의 “나만의 빠히”라는 영상에는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난다.<sup>39)</sup> “빠히”(파리)를 방문할 수 없는 작가의 시선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서울”에 고정되어 있고 파리에서 작곡된 라벨과 드뷔시의 곡을 중심으로 서울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음과 음악들이 뒤섞여 있다. 한편 이 작품을 포함한 국립심포니의 리믹스 영상들은 예술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성이 두드러지는 KBS교향악단의 리믹스 작업에서도 유사한 혼종성을 느낄 수 있다.

38)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600,” <https://youtu.be/62Hb5qDtyz8> [2022년 8월 29일 접속].

39)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나만의 빠히,” <https://youtu.be/OH0mpUhGKo4> [2022년 8월 29일 접속].

KBS교향악단은 “드라마 오브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5개의 영상을 게재하였는데, KBS가 만든 드라마 영상에 클래식 음악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영상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과거의 음악과 한국에서 최근 제작된 드라마의 만남으로 태생적으로 혼종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자막이 삽입되는데, 이 자막이 리믹스 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호할 수 있는 영상과 음악 위에 창작자의 의도가 분명한 자막을 삽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원래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게 된다. 즉, 이 영상들은 문화 혼종을 통해 탈맥락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예들이다.<sup>40)</sup>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가지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치광이 폭군 ‘궁예’와 스트라빈스키 ‘불새’의 만남”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다.<sup>41)</sup> 이 영상에 대하여 KBS교향악단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였다.

\* 작품 비하인드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음악 중 최초의 작품인 ‘불새’는 마왕인 카스체이의 성에 붙잡힌 아름다운 왕녀를 불새의 도움을 받아 구출하는 ‘불새의 전설’ 줄거리를 바탕으로 작곡 된 발레음악입니다.

태조 왕건에 의해 폭군 궁예를 무찌르고, 어지럽혀진 나라를 재건한 것처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의 폭발적인 음악이 미묘하게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댓글을 보면 시청자들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과 궁예의 영상에서 “미묘하게 비슷한” 감정보다는 당황함을 주로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이게 뭐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ㅋㅋㅋㅋ너무 잔잔하게 미치신거 아닌가요 ㅋ ㅋ ㅋ ㅋ”, “이젠 관현악단도 도핑검사를 해야할 시대인가”, “역시 음악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넘모 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등이다. 이런 반응들을 고려할 때 시청자들은 원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과 궁예의

40) 이명현, “판소리의 탈맥락화와 문화혼종: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2021), 162.

41) KBS교향악단, “미치광이 폭군 ‘궁예’와 스트라빈스키 ‘불새’의 만남,” <https://youtu.be/tl7Re47bHEo> [2022년 8월 29일 접속].

영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새로운 의미는 “병맛”이다.

“병맛”은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부터 주류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병맛”은 청년층 혹은 20대만의 독특한 문화 코드로 이해되었다.<sup>42)</sup> “병맛”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키치스러움이 대중 트렌드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sup>43)</sup> “병맛”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접근이라고 알려진 2011년 논문에서 김수환은 “병맛 만화”는 “조야한 그림체”와 “과격한 서사 파괴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sup>44)</sup> 한편 『나무위키』는 “병맛”에 대하여 “이야기의 개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하였다.<sup>45)</sup> KBS교향악단의 리믹스 영상은 원작인 드라마의 영상과 줄거리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조야하거나 과격한 서사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서 “병맛”이 느껴지는 것은 “개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영상과 음악의 조합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자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강철 딱밤!!)”(32초), “(죽은 척 시전)”(2분), “확 다 죽인다잉?!”(2분 51초) 같은 자막들은 원작의 영상과 음악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내용이다. 한편 《범 내려 온다》로 잘 알려진 《Feel the Rhythm of Korea》의 기획자인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공기업을 홍보 영상은 [...] MZ세대의 병맛에 대한 수요나 취향도 고려해야 한다”<sup>46)</sup>고 언급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KBS교향악단의 리믹스 영상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새로운 젊은 청취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42) 박재연, “‘병맛’ 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작동방식,” 『대중서사연구』 25/3 (2019), 147.

43) 박재연, “‘병맛’ 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작동방식,” 149.

44) 박재연, “‘병맛’ 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작동방식,” 155.

45) “병맛,”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91%EB%A7%9B> [2022년 8월 29일 접속].

46) 이명현, “판소리의 탈맥락화와 문화혼종,” 167.

#### IV. 교육: 배움의 장으로서의 유튜브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학습 방식도 변화시켰다.<sup>47)</sup> 특히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와 음악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sup>48)</sup>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음악교육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오케스트라에게 교육은 사실 연주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으로 대부분의 단체들이 교육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필자의 관찰로는 음악교육 영상은 타겟 시청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즉 학생을 위한 영상, 음악 전공생을 위한 영상, 일반인을 위한 영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시청자를 위한 영상을 모두 제작하는 교향악단은 서울시향이 유일하다. 여기에서는 서울시향의 교육 영상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경북도향이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서울시향은 2018년부터 EBS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생애 주기별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학교 교과서 음악 영상교재를 제작해왔다. 그중 “음악나라의 엘리스”는 어린이를 위해,<sup>49)</sup> “인사이드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을 위해<sup>50)</sup> 제작한 영상이다. 이외에도 EBS와 협업한 또 다른 교육용 영상은 “360도 오케스트라\_VR Orchestra”가 있다.<sup>51)</sup> 이것은 VR기기를 사용하여 연주장의 여러 곳에서 음악을 체험하는 것 같은 경험을 주는데, 2015년 LA

47) Emine Serdaroglu, “Exploring the Use of Youtube by Symphonic Orchestras as An Educational Platform during the Pandemic of Covid-19,”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7/3 (2020), 59.

48) 음악교육과 유튜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시오. 윤관기, “음악 기악교육 관련 유튜브 콘텐츠 현황 분석,” 『예술교육연구』 19/4 (2021), 89-105; 김경태, “국악 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 분석,” 『음악교육공학』 47 (2021), 81-100.

49)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나라의 엘리스] #1: 길고 짧은 것들이 모여서 리듬,” <https://youtu.be/qQBlaJqBz6c> [2022년 8월 29일 접속].

50)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이드 오케스트라] 현 이야기 #1: 도발,” <https://youtu.be/bOFKVffZQKk> [2022년 8월 29일 접속].

51) 서울시립교향악단, “[VR오케스트라 (360° VR)] 그리그: ‘페르 귄트 모음곡’ 1번 중 ‘아침의 기분,’” <https://youtu.be/AWJeMqdiBO8> [2022년 8월 29일 접속].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제작한 영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sup>52)</sup> 서울시향이 일반인들을 위해 제작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콘미공”과 “꼬꼬클”이 있다. “콘미공”이라고 알려진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는 총 48편이 제작되었으며 음악회를 오기 전에 연주할 곡들에 대해 진행자들이 대담 형식을 통해 미리 설명해주는 영상이다.<sup>53)</sup> 2022년부터는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인 “꼬꼬클”,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클래식”이라는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다.<sup>54)</sup> 또한 서울시향은 “음대생포유”라는,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영상도 제작하고 있다. “이 영상 안 본 대한민국 음대생 없게 해주세요”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상의 대상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고 영상 내용은 전문 연주자들이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또한 영상 중에는 SNS를 통해 질문을 받고 답하는 순서도 있다.<sup>55)</sup>

경북도향은 교육을 위한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편집을 하면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영상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교육용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 먼저 2022년 5월 16일에 업로드된 “성주군민과 함께하는 가족특별공연 ‘그림자극 마술피리’”는 초등학교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족용으로 제작되었다.<sup>56)</sup> 본 영상은 같은 해 4월 2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던 공연의 실황 녹화인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준 높게 제작되었다. 이 영상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공연에서는 오페라의 독일어 대사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림자극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효과적인 수

52) LA 필하모닉의 VR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손민경, “VR 청취의 명과 암: 미국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VR 프로젝트(2015)를 중심으로,” 『음악논단』 47 (2022), 381-412를 참고하시오.

53) 서울시립교향악단, “유카페카 사라스테 / 서울시향의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유카페카 사라스테의 라벨 1”,” [https://youtu.be/i1hTj\\_yQQY](https://youtu.be/i1hTj_yQQY) [2022년 8월 29일 접속].

54)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리스 로마 신화와 클래식: 음악의 신은 누구일까요..?,” <https://youtu.be/6flaEl9Z8SM> [2022년 8월 29일 접속].

55) 서울시립교향악단, “현악 사중주 ③: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ttps://youtu.be/u5gZP72KA00> [2022년 8월 29일 접속].

56)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성주군민과 함께 하는 가족특별공연 ‘그림자극 마술피리’,” <https://youtu.be/ws9vxUHm8ng> [2022년 8월 29일 접속].

단이였다. 그러나 아리아들은 독일어로 노래 불리었는데 이 부분에 한국어 자막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어로 된 아리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여서 한글 자막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아리아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둘째, 동영상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오페라의 줄거리가 막별로 설명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간을 포함하는 타임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막의 시작 부분이나 주요 아리아에 대하여 타임라인을 제시하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체 오페라에서 주요 아리아를 발췌하여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요 아리아나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짧게 편집된 동영상을 올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사냥 호른<sup>57)</sup>이나 피콜로 트럼펫<sup>58)</sup>처럼 평소에 접하기 힘든 악기로 연주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악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일반인들을 위한 좋은 교육용 자료가 될 것이다. 전문가를 위한 영상으로는 “Casey Cangelosi - A Cool Gadget for Tambourine”을 들 수 있다.<sup>59)</sup> 이 곡은 잘 알려진 곡이 아니기 때문에 작곡가나 곡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전문연주자나 감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곡을 연주한 타악기 주자 김지원과의 인터뷰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곡의 연주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경북도향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해시태그나 영어 자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57)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S. Rachmaninoff - Vocalise op.34 for Trumpet,” [https://youtu.be/hqaCn0svK\\_Y](https://youtu.be/hqaCn0svK_Y) [2022년 8월 29일 접속].

58)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Marc-Antoine Charpentier - Te Deum,” <https://youtu.be/I9VFq2-bWTs> [2022년 8월 29일 접속].

59)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Casey Cangelosi - A Cool Gadget for Tambourine,” <https://youtu.be/vN3mEReZGIU> [2022년 8월 29일 접속].

## V. 홍보: 홍보 매체로서의 유튜브

유튜브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홍보 매체 중 하나이다. 2021년 현재 국내 상위 20개 그룹 중 14개 기업이 유튜브 채널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0개 기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sup>60)</sup>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홍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는 “디지털 문화의 융복합 속성”을 반영한다.<sup>61)</sup>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오케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sup>62)</sup> 이를 위해 유튜브가 적절한 홍보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경북도향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홍보 영상으로는 “TBC 굿데이 프라이데이: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음악회”가 유일하다.<sup>63)</sup> 이것은 대구방송(TBC)의 금요일 저녁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에서 2020년 6월 1일 방송된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으로, 경북도향은 아직 홍보 영상을 활발히 제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보 영상을 가장 열심히 만드는 교향악단은 KBS이다. KBS교향악단의 홍보 영상들은 구성에 따라 전통적인 홍보 영상, 연주자 인터뷰, 예능 영상, 짧은 동영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례대로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KBS교향악단의 전통적인 홍보 영상은 “Official Trailer”와 “다 큐심포니”이다. 그리고 “Nice to Matthew!”는 KBS교향악단의 타악기 단원인 매튜 에른스터(Matthew Ernster)가 지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연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내용이다. “연주자가 묻고 지휘자가 직접 답하는 신개념 클래식 토크쇼”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적인 경향뿐만 아니라 홍보의

60) 이미나, 박천일, 왕상환, “국내 주요 기업의 유튜브 분석: 홍보 활동과 현황,” 『광고PR실학연구』 14/1 (2021), 43.

61) 이미나, 박천일, 왕상환, “국내 주요 기업의 유튜브 분석,” 34-36.

62) Alan Gilbert, “Orchestras in the 21st Century - A New Paradigm,” *The Guardian*, 2015년 4월 15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5/apr/15/alan-gilbert-orchestras-in-the-21st-century-a-new-paradigm#:~:text=Music%20helps%20to%20define,uplifting%2C%20thought%2Dprovoking%20music> [2022년 8월 29일 접속].

63)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TBC 굿데이 프라이데이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음악회,” <https://youtu.be/HM6zq77pwvs> [2022년 8월 29일 접속].

성격도 띠고 있다.

한편 KBS교향악단은 예능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매우 뛰어난 수완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영상으로는 “Lost Ark Concert Commentary”(로스트 아크 콘서트 해설)가 있다.<sup>64)</sup> 이 영상은 2022년 8월 29일 현재 조회수가 312,316로 KBS교향악단이 올린 영상 중 가장 인기가 많다.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트 아크와 로스트 아크 콘서트 영상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로스트 아크는 스마일게이트 RPG가 개발한 MMORPG 게임으로 2019년 12월 4일에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이 게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2년 2월 13일 포브스는 “로스트 아크가 무엇이며 왜 갑자기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되었나?”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sup>65)</sup>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2022년 6월 3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로스트 아크 콘서트가 개최되었는데, 이 음악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입장권은 35초 만에 매진이 되었고, 유튜브로 진행된 콘서트 생방송<sup>66)</sup>의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21만 명에 달했으며 콘서트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약 3일 만에 170만 회를 넘어섰다.<sup>6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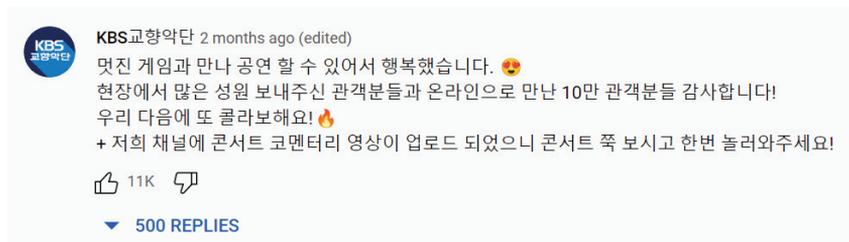
이 음악회에서 연주를 맡은 KBS교향악단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이는 단지 연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 방안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KBS교향악단은 콘서트 해설 영상을 제작한 다음 로스트 아크 공식 계정에 올라온 콘서트 영상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64) KBS교향악단, “Lost Ark Concert Commentary,” <https://youtu.be/MAjroHUGFbQ> [2022년 8월 29일 접속].

65) Paul Tassi, “What is ‘Lost Ark’ And Why Is It Suddenly The Most Popular Game On Earth?,” *Forbes*, 2022년 2월 13일, <https://www.forbes.com/sites/paultassi/2022/02/13/what-is-lost-ark-and-why-is-it-suddenly-the-most-popular-game-on-earth/?sh=190c127b3334> [2022년 8월 29일 접속].

66) 로스트아크, “LOST ARK Concert, Dear Friends,” <https://youtu.be/10okVreqe0s> [2022년 8월 29일 접속].

67) 배정환, “창작 그룹 동화, 로스트아크 콘서트 ‘Dear. Friends’ Music from LOST ARK 초청 공연,” 『경상일보』, 2022년 8월 3일,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152> [2022년 8월 29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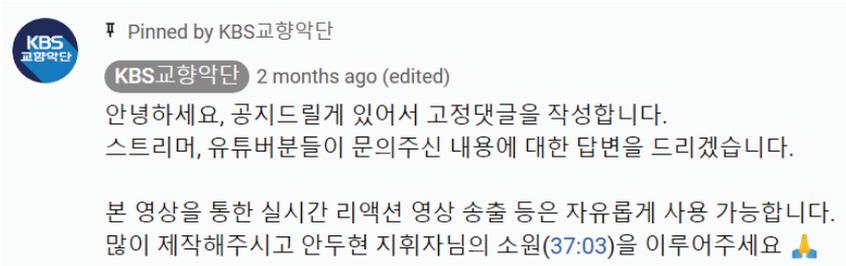


이 댓글에 달린 좋아요 수가 11K를 넘어가고 댓글이 500개 달린 것을 보면 홍보 효과가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KBS가 제작한 “Lost Ark Concert Commentary”는 연주에 참여하였던 안두현 지휘자와 한윤미밴드 리더인 한윤미가 연주회 영상을 보면서 뒷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크게는 연주회 해설과 연주회 문답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문답 시간은 손유리 KBS교향악단 공연기획팀장이 참여하여 댓글에 달린 질문들에 답변하였다. 질문 중의 하나는 “클래식의 대중화에 있어서 이번 공연은 어떤 위치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추천 클래식 곡이 있는지 여쭙습니다”였다. 이에 대해 손유리 공연기획팀장은 “정말 새로운 관객층을 만난 거예요. 저희 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볼 수 없었던 관객층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해설 영상이 올라온 이틀 뒤인 2022년 6월 21일 KBS교향악단은 “로아[로스트 아크] 유저를 위한 추천 클래식 트라이팟”이라는 섬네일을 제작하여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추천곡으로 안내하기도 하였다.<sup>68)</sup> 이런 예들은 로스트 아크 콘서트의 홍보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KBS교향악단은 다시 한번 댓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하였다. KBS교향악단은 로스트 아크 연주회 해설 영상 아래 다음과 같은 댓글을 고정하여 놓았다.

68) KBS교향악단,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작품18.” <https://youtu.be/saMGosliKmM> [2022년 8월 29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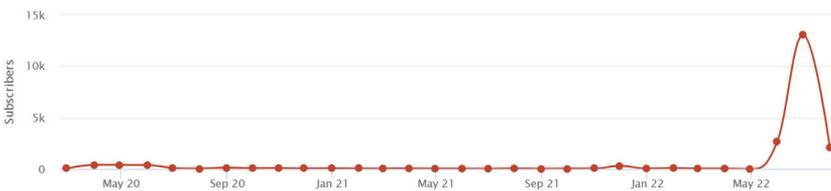
윗 댓글에서 언급한 “안두현 지휘자님의 소원”(37:03)은 다음과 같다.

많은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 하시잖아요. 리액션 영상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퍼질 수 있게끔, 그래서 KBS교향악단에도 더 많은 사랑이 올 수 있게끔, 로아 유저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로스트 아크 콘서트 리액션”으로 검색을 해보면 적지 않은 영상들이 발견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로스트 아크 콘서트는 홍보 면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공연을 통해 KBS교향악단의 구독자 수가 실제로도 급증하였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KBS교향악단의 신규 구독자가 폭증하였다.

〈그래프 1〉 KBS교향악단의 매월 신규 구독자수<sup>69)</sup>



69) 소셜블레이드, “KBS교향악단,” <https://socialblade.com/youtube/c/kbssymphonyorchesttrakbs> [2022년 8월 29일 접속].

이것은 향후 구독자 예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22년 8월 17일 현재 KBS교향악단 구독자는 23.3K로 서울시립교향악단(23.1K)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셜블레이드의 5년 후 구독자 추정수를 보면 KBS교향악단은 1,803,940명에 달하는 반면, 서울시향은 58,835명에 불과하다.

**〈표 2〉 KBS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의 5년 뒤 구독자 전망치 비교**

	2022년 8월 현재 구독자수	2027년 8월 예상 구독자수
KBS교향악단	23.3K	1,803K
서울시향	23.1K	59K

그리고 이 외에도 KBS교향악단은 짧은 동영상 많이 제작하는데, 그 홍보 효과 역시 매우 뛰어나다. KBS교향악단은 “클래식 최고의 플레이”라는 1분짜리 영상을 유튜브 쇼츠(Shorts)로 올리고 있는데, KBS교향악단의 조회수 상위 10개 영상 중에 4개가 쇼츠이다(〈부록 3〉 참고). 이 영상들은 곡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주를 이루지만 공연에 대한 홍보나 연주자들의 백스테이지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쇼츠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영상은 앞에서 살펴본 궁예와 스트라빈스키의 리믹스 영상에 대한 반응을 쇼츠로 제작하여 올린 것이다.<sup>70)</sup> 이것은 리믹스 영상을 재가공한 것으로 짧은 길이로 인해 접근성 측면에서 보다 뛰어나다. 특히 쇼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주요 이용 동기가 “습관적 소비성”과 “접근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KBS의 이런 제작 방식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sup>71)</sup>

70) KBS교향악단, “특이점이 온 KBS교향악단, #shorts.” [https://youtube.com/shorts/NFc\\_6rR5yQg?feature=share](https://youtube.com/shorts/NFc_6rR5yQg?feature=share) [2022년 8월 29일 접속].

71) 이유진, 유세경, “짧은 동영상 이용 동기가 동영상 유형별 이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2/4 (2018), 65.

## VI. 나가며

지금까지 경북도향의 유튜브 계정을 기록, 감상, 교육, 홍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경북도향은 기록과 감상 기능 위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홍보와 관련된 영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국립심포니, 서울시향, KBS교향악단은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 국립심포니는 기록, 감상에서, 서울시향은 감상, 교육에서, KBS교향악단은 감상, 홍보에 탁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향악단들은 젊은 관객층의 발길을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거나 플레이리스트와 리믹스 영상을 사용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영상의 기능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영상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유튜브 계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오케스트라 활동의 전체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교향악단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몰아닥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평등은 “공간적 불평등으로 발현되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72)</sup>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문화자본 역량은 주민의 지역만족도, 지역소속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sup>73)</sup> 한편 지방정부의 문화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소비도 반드시 증가하여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sup>74)</sup> 경북도향의 지휘자 백진현은 2020년 6월 1일 대구방송(TBC)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도 [...] [경상북도민들이] 문화향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sup>75)</sup>라고 이야기하였다. 힘든 상황에도 도민들에게 문화를 전

72) 박경현, 이혜민, 민성희 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 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2022), 1.

73) 김영화,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1/4 (2017), 105.

74) 이재희, “지방자치 이후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8/4 (2010), 71.

75)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TBC 굿데이 프라이데이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음악회,” <https://youtu.be/HM6zq77pwvs?t=832> [2022년 8월 29일 접속].

달하려는 경북도향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유튜브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글검색어:** 경상북도 도립 교향악단, 유튜브, 문화자본, 옴니보어 가설, 플레이리스트, 리믹스 영상

**영문검색어:** Gyeongsangbuk-do Philharmonic Orchestra, Youtube, Cultural Capital, Omnivore Theory, Playlist, Remix Video

## 참고문헌

- 기영화.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1/4 (2017): 85-110.
- 김경태. “국악 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 분석.” 『음악교육공학』 47 (2021): 81-100.
- 김대원, 조용운. “실시간 스트리밍 스포츠 중계 채팅창의 논의 내용과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1 (2016): 5-46.
- 김수정, 최셋별. “부르디외의 지적 전통이 한국 문화정책에 갖는 함의: 문화자본론과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2 (2018): 33-55.
- \_\_\_\_\_, 이명진, 최셋별. “협오시대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적 관용의 한계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문화와 사회』 28/3 (2020): 51-96.
- 김호경. “스트리밍 시대 새로운 음악 감상 방식의 출현과 그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박경현, 이혜민, 민성희, 강민조, 김수진, 최예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2022.
- 박재연. “‘병맛’ 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작동방식.” 『대중서사연구』 25/3 (2019): 143-180.
- 손민경. “VR 청취의 명과 암: 미국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VR 프로젝트 (2015)를 중심으로.” 『음악논단』 47 (2022): 381-412.
- 윤관기. “음악 기악교육 관련 유튜브 콘텐츠 현황 분석.” 『예술교육연구』 19/4 (2021): 89-105.
- 이명현. “판소리의 탈맥락화와 문화혼종: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2021): 159-184.
- 이미나, 박천일, 왕상환. “국내 주요 기업의 유튜브 분석: 홍보 활동과 현황.” 『광고PR실학연구』 14/1 (2021): 33-54.
- 이유진, 유세경. “짧은 동영상 이용 동기가 동영상 유형별 이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2/4 (2018): 65-102.
- 이재희. “지방자치 이후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8/4 (2010): 53-72.
- 주민재.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재의미화의 관계: 소환된 시티팝과 뉴트로 현

- 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3 (2022): 69-97.
- 최선헌. “상류계층 광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학회』 36/1 (2002): 113-144.
- Benelli, Sabina. “Broadcasting and Orchestra Libraries.” *Fontes Artis Musicae* 60/4 (2013): 281-283.
- Czeisel, Marianna J. and Veronica D. Smith. “University Music Students’ Choice of Music Listening Sources: Use of Library Resources as Compared with Non-Academic Streaming Services.” *Music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4/4 (2021): 194-220.
- Nelson-Strauss, Brenda. “Preserving Chicago Symphony Orchestra Broadcast Tapes.” *The Midwestern Archivist* 16/1 (1991): 21-30.
- Serdaroglu, Emine. “Exploring the Use of Youtube by Symphonic Orchestras as An Educational Platform during the Pandemic of Covid-19.”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7/3 (2020): 59-66.

## 인터넷 자료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나만의 빠히,” <https://youtu.be/OH0mpUhGKo4>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Good Morning 넌 어떻게 자다 일어난 모습까지 예쁘니?,” [https://youtu.be/D5TDcbK\\_9v0](https://youtu.be/D5TDcbK_9v0)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Travel Maker.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https://youtu.be/mn2EieNNtsE>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600,” <https://youtu.be/62Hb5qDtyz8> [2022년 8월 29일 접속].
- 경상북도. “교향악단 소개,”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culture/page.do?mnu\\_uid=2222](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culture/page.do?mnu_uid=2222)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21.9.15.(수) 보도자료,”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0&B\\_NUM=120132101&B\\_STEP=120132100&B\\_LEVEL=](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0&B_NUM=120132101&B_STEP=120132100&B_LEVEL=)

- O&key=0&word=&p1=0&p2=0&V\_NUM=1594 [2022년 8월 29일 접속].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https://youtu.be/4g-uOfQG4WU>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성주군민과 함께 하는 가족특별공연 ‘그림자극 마술피리,’” <https://youtu.be/ws9vxUHm8ng>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양진모 - 푸른 울쟁이 떼,” [https://youtu.be/eferaJas\\_i4](https://youtu.be/eferaJas_i4)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핵귀염주의※ 징글벨 & 천사들의 노래가,” <https://youtu.be/OtEbMMkuIgc>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Casey Cangelosi - A Cool Gadget for Tambourine,” <https://youtu.be/vN3mEReZGIU>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Marc-Antoine Charpentier - Te Deum,” <https://youtu.be/I9VfQ2-bWTs>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S. Rachmaninoff - Vocalise op.34 for Trumpet,” [https://youtu.be/hqaCn0svK\\_Y](https://youtu.be/hqaCn0svK_Y)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TBC 굿데이 프라이데이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음악회,” <https://youtu.be/HM6zq77pwvs> [2022년 8월 29일 접속].
- 김상하. “노동요 없이 일 못 해” Z세대 음악 감상법.” 『주간동아』, 2022년 4월 27일, <https://weekly.donga.com/List/Series/3/all/11/3331999/1> [2022년 8월 29일 접속].
- 김지혜. “플레이리스트가 만드는 ‘취향의 공동체’ … MZ세대가 유튜브로 음악 듣는 이유.” 『경향신문』, 2020년 11월 10일,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011101342011#c2b> [2022년 8월 29일 접속].
- 로스트아크. “LOST ARK Concert, Dear Friends,” <https://youtu.be/10okVreqe0s> [2022년 8월 29일 접속].
- 배성수. “음원시장 강자 ‘멜론’ 글로벌 업체 등 공세에도 1위 굳건.” 『한국경제』, 2022년 6월 13일,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61358011> [2022년 8월 29일 접속].
- 배정환. “창작 그룹 동화, 로스트아크 콘서트 ‘Dear. Friends’ Music from LOST ARK 초청 공연.” 『경상일보』, 2022년 8월 3일, <http://www.ksilbo>.

- 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152 [2022년 8월 29일 접속].
- “병맛.”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91%EB%A7%9B> [2022년 8월 29일 접속].
- 서울시향. “[보도자료][22.04.08.] 서울시향, 유튜브 통해 디지털 콘서트홀 아카이빙 프로젝트 시작,” <https://www.seoulphil.or.kr/spo/newInfo/detail?langCd=ko&menuFlag=MFLG0001&postNo=6478> [2022년 8월 29일 접속].
-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리스 로마 신화와 클래식: 음악의 신은 누구일까요..?,” <https://youtu.be/6flaEl9Z8SM>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미라클(美樂Classic) 서울 | 별마당도서관편,” <https://youtu.be/DqyJV1vnug0>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https://youtu.be/GPtfcaZOd24>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오스모 벤스케와 함께 하는 서울시향 온라인 콘서트,” <https://youtu.be/gZ90FEgq-9Q>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유카페카 사라스테 / 서울시향의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유카페카 사라스테의 라벨 1”,” [https://youtu.be/i1hTj\\_yQQQY](https://youtu.be/i1hTj_yQQQY)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음악나라의 앨리스] #1: 길고 짧은 것들이 모여서 리듬,” <https://youtu.be/qQBlaJqBz6c>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인사이드 오케스트라] 현 이야기 #1: 도발,” <https://youtu.be/bOFKVffZQKk>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현악 사중주 ③: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ttps://youtu.be/u5gZP72KA00>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VR오케스트라 (360° VR)] 그리그: ‘페르 귄트 모음곡’ 1번 중 ‘아침의 기분’,” <https://youtu.be/AWJeMqdjBO8> [2022년 8월 29일 접속].
- 소셜블레이드. “KBS교향악단,” <https://socialblade.com/youtube/c/kbssymphonorchestrakbs> [2022년 8월 29일 접속].
- 월클. “Good Morning Ost,” <https://brunch.co.kr/@ksowebzine/10> [2022년 8월 29일 접속].
- Cha, Victor. “A Timeline of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0년 3월 27일,

- <https://www.csis.org/analysis/timeline-south-koreas-response-covid-19> [2022년 8월 29일 접속].
- DCU음악 · 공연예술대학.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기 연주회 1부,” [https://youtu.be/vRtM\\_pyQn0k](https://youtu.be/vRtM_pyQn0k)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기 연주회 2부,” [https://youtu.be/1U6CV\\_XMc7WY](https://youtu.be/1U6CV_XMc7WY) [2022년 8월 29일 접속].
- Gilbert, Alan. “Orchestras in the 21st Century - A New Paradigm.” *The Guardian*, 2015년 4월 15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5/apr/15/alan-gilbert-orchestras-in-the-21st-century-a-new-paradigm#:~:text=Music%20helps%20to%20define,uplifting%2C%20thought%2Dprovoking%20music> [2022년 8월 29일 접속].
- KBS교향악단. “당신이 뭘 하든 집중력 상승! 고전시대 대표 교향곡 모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https://youtu.be/0RanlIByPwM>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작품18,” <https://youtu.be/saMGosliKmM>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 “미치광이 폭군 ‘궁예’와 스트라빈스키 ‘볼새’의 만남,” <https://youtu.be/tl7Re47bHEo>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 “비오는 남산에서 듣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명곡 모음 + 빗소리 ASMR 추가,” <https://youtu.be/guH4KzpMeqc>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 “특이점이 온 KBS교향악단, #shorts,” [https://youtube.com/shorts/NFc\\_6rR5yQg?feature=share](https://youtube.com/shorts/NFc_6rR5yQg?feature=share) [2022년 8월 29일 접속].
- \_\_\_\_\_ . “Lost Ark Concert Commentary,” <https://youtu.be/MAjroHUGFbQ> [2022년 8월 29일 접속].
- Red Velvet. “Feel My Rhythm,” <https://youtu.be/R9At2iCm4LQ> [2022년 8월 29일 접속].
- SMTOWN, “서울시립교향악단 ‘Feel My Rhythm (Orchestra Ver.),’” <https://youtu.be/rQbXDnGgHVQ> [2022년 8월 29일 접속].
- Tassi, Paul. “What is ‘Lost Ark’ And Why Is It Suddenly The Most Popular Game On Earth?,” *Forbes*, 2022년 2월 13일, <https://www.forbes.com/sites/paultassi/2022/02/13/what-is-lost-ark-and-why-is-it-suddenly-the-most-popular-game-on-earth/?sh=190c127b3334> [2022년 8월 29일 접속].

## 국문초록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의 유튜브 계정 분석 연구:  
현황 파악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강 용 식

본 연구는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이하 '경북도향')의 유튜브 계정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향의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영상들을 기능에 따라 기록, 감상, 교육, 홍보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다른 오케스트라와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오케스트라들은 국립심포니,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이다. 교향악단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평등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문화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문화소비가 반드시 증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에도 도민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려는 경북도향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유튜브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the YouTube Account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Symphony Orchestra:  
With a Focus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Operation Plan

Kang, Yongsik

This study analyzes the YouTube account of the Gyeongsangbuk-do Provincial Symphony Orchestra (hereafter 'Gyeongbukdohyang') and suggests an effective operation plan. To this end, the videos posted by Gyeongbukdohyang were divided into recording, appreciatio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ccording to their function, and its operating status was compared with other orchestras. The orchestras used for comparison are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nd KBS Symphony Orchestra. Meanwhile, symphony orchestra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inequality triggered by COVID-19 is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In this situation, the cultural capital of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increased and accompanied by cultural consumption of regional residents. For this, long-term education and experience are required. I hope that Gyeongbukdohyang's efforts to deliver culture to its residents will succeed and that the use of YouTube for various functions will serve as a clue to the solution.

## 〈부록 1〉 경북도향 전체 영상 리스트

번호	일시	제목	조회수	좋아요
1	2020-05-19	M. Ravel, Bolero	4,324	165
2	2020-05-29	J.S Bach, Brandenburg Concerto No.3 in G Major, BWV 1048	2,186	55
3	2020-05-29	B. Britten, Simple Symphony for String Orchestra, Op.4	1,446	57
4	2020-06-01	TBC굿데이프라이데이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음악회	1,126	38
5	2020-06-12	P. Mascagni, Intermezzo from Opera "Cavalleria Rusticana"	1,152	44
6	2020-06-12	섬집아가기 with 아리랑, 편곡: 이혜영	1,173	56
7	2020-06-26	G. Mahler, Piano Quartet in a minor, Nicht zu schnell - Entschlossen	1,004	40
8	2020-07-11	Joseph Eybler, String Quintet in B flat major, Op 6, No. 1 HV 188	863	43
9	2020-07-31	[국내초연] Casey Cangelosi, A Cool Gadget for Tambourine	2,846	192
10	2020-08-07	D. Shostakovich, Five Pieces for 2 Violins and Piano	3,844	103
11	2020-08-14	경북도민에게 전하는 '8월의 안부'	2,376	69
12	2020-08-21	C. Debussy, The Little Negro, 오보에 트리오	1,481	102
13	2020-09-01	J.S Bach, Menuette Suite, 클라리넷 앙상블	619	25
14	2020-09-06	F. Kuhlau, Flute Trio in g minor, Op.13 No.2, 플루트 트리오	1,210	36
15	2020-10-16	163회 정기연주회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1,928	55
16	2020-11-17	[집 록! 클래식 ep.1] 마법의 성 & 거위의 꿈	2,791	89
17	2020-11-18	[집 록! 클래식 ep.2] 양진모, 푸른 올챙이 떼	11,194	324
18	2020-11-25	[집 록! 클래식 ep.3] 현악앙상블 / 슈베르트, 마왕	1,822	76
19	2020-11-26	[집 록! 클래식 ep.4] Marc-Antoine Charpentier, Te Deum / Piccolo Trumpet	727	25
20	2020-11-26	[집 록! 클래식 ep.5] Antonín Dvořák(1841-1904), Terzetto for 2 Violin and Viola in C Major, Op.74	2,303	73
21	2020-11-27	[집 록! 클래식 ep.6] 트롬본 솔로 / C. Velazquez, Bésame Mucho	692	19

22	2020-11-27	[집콕! 클래식 ep.7] 튜바 솔로 / V.Monti, Czardas	2,079	45
23	2020-11-27	[집콕! 클래식 ep.8] 트럼펫 솔로 / Olivire de Saint-Preux, Concerto pour une voix	926	36
24	2020-11-28	[집콕! 클래식 ep.9] 걱정말아요 그대 / 비올라, 플룻, 바순 트리오	1,133	35
25	2020-11-28	[집콕! 클래식 ep.10] S. Rachmaninoff, Vocalise op.34 for trumpet / Corno da caccia	821	19
26	2020-11-28	[집콕! 클래식 ep.11] 목관앙상블 / E.Bozza - Three piece for Flute, Oboe, Clarinet, Bassoon	2,220	103
27	2020-11-29	[집콕! 클래식 ep.12]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853	22
28	2020-11-29	[집콕! 클래식 ep.13] 첼로 솔로 / 양진모 - 대화	2,620	81
29	2020-11-29	[집콕! 클래식 ep.14] 클라리넷 솔로 / Igor Stravinsky - Three pieces for Clarinet (1919)	667	20
30	2020-11-29	[집콕! 클래식 ep.15] Over the Rainbow	1,467	74
31	2020-12-01	[집콕! 클래식 ep.16] 바순 솔로 / Herausgegeben von Oskar peter No.1 Capricen	801	14
32	2020-12-01	[집콕! 클래식 ep.17] 트롬본 솔로 / A. Guilmant - Concertpiece Op.88	663	15
33	2020-12-01	[집콕! 클래식 ep.18] 바이올린 듀오 / Béla Bartók - 44 Duos for Two Violins, Sz. 98	1,302	36
34	2020-12-01	[집콕! 클래식 ep.19] ※미리보는 크리스마스 / 오보에 트리오 /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896	45
35	2020-12-14	[집콕! 클래식 ep.20] 첼로&피아노 너의 노래 나의 노래 우리들의 노래	861	45
36	2020-12-24	[집콕! 클래식 ep.21] ※핵귀염주의※ 징글벨 & 천사들의 노래가	3,563	196
37	2020-12-30	[집콕! 클래식 ep.22] Auld lang syne & Amazing Grace	1,905	133
38	2020-12-31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X 구미시립합창단]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1,659	63
39	2021-01-15	튜바솔로 Rossini - Il Barbiere di Siviglia from "Largo al factotum"	1,309	40
40	2021-01-29	코로나19극복 언택트콘서트 '2021 신년음악회'	2,958	86
41	2021-02-01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2,337	43
42	2021-02-02	성악앙상블 ARTLAS와 함께하는 코로나19극복 언택트콘서트 '2021 신년음악회'	761	23
43	2021-03-24	목관앙상블 R.슈트라우스 - 털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2,486	66

44	2021-03-27	금관양상블 - Amazing Grace	994	32
45	2021-03-31	금관양상블 Sonny Kompanek - Killer Tango	664	16
46	2021-04-02	금관양상블 - Can't Take My Eyes Off You	797	28
47	2021-04-14	G.Gounod - Petite Symphonie in B♭ Major	649	21
48	2021-04-19	Bohemian Rhapsody	1,294	51
49	2021-04-29	A-ha - Take on me	1,214	44
50	2021-05-24	Merry go round of Life & Waltz No.2	1,412	71
51	2021-06-01	트롬본 & 튜바 앙상블 - Two Pieces 중 March	739	19
52	2021-06-03	Jay Chattaway - Spanish Fever	922	28
53	2021-06-06	J. Sibelius - Finlandia Op. 26	1,195	21
54	2021-06-30	P.I. Tchaikovsky - Symphony No. 5 in e minor, Op.64	1,787	31
55	2022-02-13	스타니슬라프 모니우스코 - 오페라 '할카' 서곡	658	20
56	2022-02-14	라이징스타콘서트 시리즈1 / 김연준 - 청산에 살리라 / 협연 - 이정우	293	7
57	2022-05-16	성주군민과 함께하는 가족특별공연 '그림자극 마술피리'	495	17

〈부록 2〉 경북도향 인기 많은 영상 10곡 순위

	게시일자	제목	조회수	댓글수
1	2020-11-18	[집 록! 클래식 ep. 2] 양진모 - 푸른 올챙이 떼	11.2K	91
2	2020-05-19	M. Ravel - Bolero	4.3K	20
3	2020-08-07	D. Shostakovich - Five Pieces for 2 Violins and Piano	3.8K	17
4	2020-12-24	[집 록! 클래식 ep. 21] ※해귀염주의※ 징글벨 & 천사들의 노래가	3.6K	82
5	2021-01-29	코로나19극복 언택트콘서트 '2021 신년음악회'	2.9K	26
6	2020-07-31	[국내초연] Casey Cangelosi - A Cool Gadget for Tambourine	2.8K	29
7	2020-11-17	[집 록! 클래식 ep.1] 마법의 성 & 거위의 꿈	2.8K	12
8	2020-11-29	[집 록! 클래식 ep.13] 첼로 솔로 / 양진모 - 대화	2.5K	15
9	2021-03-24	#목관양상블 R.슈트라우스 - 털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장난	2.5K	12
10	2020-08-14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경북도민에게 전하는 '8월의 안부'♡	2.4K	3

## 〈부록 3〉 KBS교향악단 인기 많은 영상 10곡 순위

	게시일자	제목	조회수	댓글수
1	2022-06-19	로스트 아크 콘서트 코멘터리	310.1K	2K
2	2022-08-05	차원이 다른 손민수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78.0K	256
3	2022-06-21	작곡을 그만 두려했던 그의 말도 안 되는 명작 #Shorts	161.0K	73
4	2022-04-26	난 첼로 전공인데 왜 캐스터네츠를 하는가? #Shorts	156.6K	103
5	2022-05-31	이 명곡을 거절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Shorts	77.3K	42
6	2022-06-21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72.4K	933
7	2022-05-10	쿨한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 #Shorts	72.6K	38
8	2022-05-27	미치광이 폭군 '궁예'와 스트라빈스키 '불새'의 만남	22.1K	104
9	2022-09-18	[보면돼TV] "신비한 타악기 사전"	21.2K	17
10	2022-06-17	R. Molinelli / 'Tango Club' from Four Pictures from Newyork	16.6K	38

[논문투고일: 2022. 08. 31]

[논문심사일: 2022. 09. 20]

[게재확정일: 2022. 09. 28]

